여야, 추경 등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

文의장-원내대표 오찬도 '반쪽'…나경원 불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과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의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역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등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가능한 만큼 결의안은 당분간 외통위 차원에서 머물러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추경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기존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에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당초 예정된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 오찬은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때문에 오늘은 빠지는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막장 치닫는 바른미래…폭로·고성·몸싸움에 병원행까지

혁신위 개입 의혹에 … "진상규명 촉구" vs "흠집내기 유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혁신위 관계자들이 손학규 대표에게 대화를 촉구하며 문을 막았으나 손 대표가 빠져나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비당권파인 유승민·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원회에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봉합된듯 보였던 당내 갈등이 재점화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작심한 듯 유 의원을 직격했다.

손 대표는 "당대표급 인사가 혁신위원에게 혁신위에 개입하겠다고 했다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이라 공식 절차로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유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권성주 혁신위원도 이제 단식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용술 혁신위원은 당권파인 임재훈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의원과 이 의원이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조 혁신위원을 만나 손 대표 퇴진안을 혁신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간 설전이 오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혁신위를 정상화해 당 자강에 앞장서야 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승민) 전임대표와 혁신위원을 흠집내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 총장을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으로 유 전 대표를 건드리더니 이제는 이 의원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당직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 임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공세에 임 사무총장은 "혁신위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2명과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 독립성 침해로 보여질 소지가 다분하다. 의미심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과 혁신위원을 만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저도 주 위원장을 여러차례 만나 제 의견 전달했다. 만난 것이 뭐가 잘못인가"라며 "손 대표의 퇴진과 지도부 체제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당이 꼼수의 공작정치로 지저분한 정치를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도 고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손 대표가 불쾌했던 듯 자리를 먼저 뜨려하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화해야 할 것 아닌가. 혁신위 안 할 건지, 할 건지를 결론 내야할 것 아닌가"라며 이석을 제지했다.

손 대표 측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 확대됐다.

손 대표가 임 사무총장과 함께 회의실 문을 억지로 밀고 나오자 권 혁신위원은 "뒷골목 건달들도 이렇게 안 한다. 왜 (혁신안을) 상정 안 하나. 당원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이게 손학규 정치인가"라고 따지며 손 대표 앞을 막아섰다. 권 위원은 현재 혁신위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농성 중이다.

10분 가까이 혁신위원과 마주보며 대치하던 끝에 손 대표가 현장을 뜨려하자 권 위원은 "이러면서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나.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다. 가실거면 밟고 가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손 대표의 측근이 힘으로 강제로 밀치면서 권 위원이 쓰러졌고 당 관계자들이 119 구급차를 불러 권 위원은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오 원내대표는 "권 혁신위원과 (다른) 혁신위원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라면서 "손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저렇게 혁신위를 방치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정치인에게 바른미래당을 이끌고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후원회장·전당대회의장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최고위 명분없는 불참 의원 징계" "박지원 곧 팔순…훈수 말고 은퇴"

평화당 당권파 포문

민주평화당 당권파가 당내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대안정치 연대'를 결성한 세력을 향해 경고를 쏟아내며 공세를 강화했다.

자강(自強)을 주장하는 당권파 중심으로 구성된 평화당 지도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안정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 불참 중인 대안정치 측 인사들을 향해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도 몇 분이 불출석했다"며 "명분이 없다. 벌써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결정으로 선출된 지도부다. 이렇게 계속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2~3번 당무복귀를 촉구했다고 경고하며 '대안정치' 결성이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월 민주평화연구원 조사를 보면 제3지대에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의견에 당원 13%가 찬성하고 80%가 반대했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위 대안정치 연대라는 탈당그룹을 결성하는 것은 해당 행위다. 해산하고 정상적인 당무에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 인기인을 영입해서 바람을 일으켜 당선되겠다는 것은 포장지 정치, 껍데기 정치라 할 수 있다"며 "정당의 알맹이는 명분과 정체성이다. 선거는 정당의 정체성과 의원 개인의 역량을 평가받는 계기이다. 포장지 정치는 국민의 눈속임 기망 정치에 다름 아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내 합법적으로 구성된 '큰 변화 추진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당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탰다.

당 청년위원장인 서진희 최고위원은 "우리당 박지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마치는 것으로 정계 은퇴하길 청한다"며 "곧 팔순이다. 물리적 나이, 무시 못 한다. 목표도 결코 쉽지 않다.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정치적 훈수도 말고 그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공격했다.

서 최고위원은 "왜 배후조종자 소리 듣나. 왜 당 깨서라도 공천권을 확보하려 하고, 공천 받으려 한다는 소리를 듣냐"고 꼬집었다.

또 "목포에서 팔순의 어르신이 출마해서 당선되기 어렵고 게다가 손혜원 의원의 의혹제기와 오기인지 결기인지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DJ 아들 출격도 심심치 않음을 아는 박지원 의원이 비례대표를 목표로 제3지대니 비대위니 한다는 지나친 모욕의 얘기를 듣는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진심으로 청한다"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몸 바쳐왔던 충정의 박지원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 드린다"며 "평화당은 DJ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다. 후진에게 큰 바위 얼굴이 DJ라면 박 의원은 존경받는 작은 바위 얼굴이 됐으면 한다"고 보탰다.

아울러 허영 최고위원은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권 싸움으로 당을 실컷 분열시켜 놓고서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는 막말까지 해대고 있다"며 "분열의 책임은 고스란히 당신들이 쥐고 가야 할 짐이다. 이상한 모임 해체하고 당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